“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역사적 서사로 재구성”

체험 중심 참여형 축제…자체 기획·실행력 확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영암군은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성공적인 왕인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 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축제는 왕인박사의 주요 업적을 재해석하고 매력적 콘텐츠를 강화해 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재단은 축제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행사 중심의 운영 관행을 벗어나 축제도시팀의 기획과 실행력을 확대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K-문화를 중심으로 브랜드 강화를 추진해 2027년 영암왕인문화축제 30주년과 ‘영암방문의 해’를 전략적으로 홍보, ‘왕인’과 ‘영암’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영암만의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구축해 브랜드 축제로서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재구조화를 통해 균형감 있는 콘텐츠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제 후에도 자산이 남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영암다움’이 반영된 매력적인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개최 목적을 재정립하고 핵심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해 전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오세헌 관광재단 축제도시팀장은 “그동안 왕인에서 파생된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대표 프로그램을 통한 역사적 가치 전달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성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개방’과 ‘연결’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적 자산을 축제의 서사로 재구성해 협력을 통한 브랜드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오는 4월 4~12일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존 관람 중심 방식에서 참여형 축제로 전환해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며 ‘왕인’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나주, 민생경제 회복 등 상반기 예산 3270억 신속집행

목표 64% 설정…지역 상권 활성화 마중물 기대

나주시가 2026년 상반기 예산 3270억원을 신속 집행,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집행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소장과 부서장이 모두 참석해 집행 실적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64%로 설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율 59%보다 5%p 높은 수준으로 지역경제 회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률과 집행률을 동시에 관리, 집행 병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절차를 단축하고 상반기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재정 투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재정 집행이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주시가 최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

강상구 부시장은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이라며 “모든 부서가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함평,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원 지원

내달 3~20일 신청 가능…4월초 지급

함평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첫 학교생활을 축하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은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함평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자격 확인이 완료되는 4월 초에 예정돼 있다.

군은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치회보 등을 통해 지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심화섭 보건소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와 가정 모두에게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출산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함평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외에도 △임신 축하선물 △출산가정 외식쿠폰 지원 △출산 축하선물 ‘행복함’ △첫만남 이용권(200~300만원)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300~1000만원)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산후조리비(최대 100만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영광군은 최근 ㈜홈앤쇼핑과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제품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홈앤쇼핑, 농특산물 판로 확대 ‘맞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 협력·전통시장 살리기 등 협력

영광군이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제품 발굴을 위해 ㈜홈앤쇼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발굴 협력 △홈쇼핑 채널서비스(방송·모바일) 제공 △전통시장·소상공인 살리기 프로그램 시행 등에 적극 협력한다.

㈜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후, 2012년 1월부터 전국방송으로 송출 중이다. 2014년 2월에는 우수협력사 성과공유제를 최초 시행, 총 자본 4815억의 건실한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다.

김재진 홈앤쇼핑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영광군 농특산물의 판로확대와 우수제품 발굴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 홍보와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고흥 ‘쌀 수급 안정’ 전략작물직불사업 운영

군, 조절용 벼 신규 도입·하계조사료 단가 인상

고흥군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4월 3일까지이며,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다. 농업인은 작물별 신청 기간 내에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주요 지원단가는 동계작물의 경우 밀은 ha당 100만원, 기타 작물은 50만원이다. 하계작물은 가루쌀·두류 ha당 200만원, 알팔파·율무 250만원, 수수 240만원이다. 특히 하계 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밀·조사료(동계작물)와 두류·가루쌀·조사료(하계작물)를 이모작 할 경우 ha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의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법인은 400ha까지다. 동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9월 30일까지 경영체 및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두류의 경우 백태와 콩나물 콩은 전년도 전략직불 이행 농가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조절용 벼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수급조절용 벼’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배 가능 품종은 새청무와 참누리 품종으로 제한되며, 계약 물량은 농지 참여 면적과 평년 생산 단수, 의무 출하 비율(1.03)을 적용해 산출한다. 수확한 벼는 11월 건조 후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남도·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점검

전시 배치·관람객 동선 확인

여수시는 최근 정현구 부시장을 비롯해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행사장 조성 주요 공정별 추진 현황을 살피고 대규모 관람객 방문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과 운영 기반 구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현장을 찾아 주행사장 부지 조성 현황, 전시·체험시설 배치 계획, 교통·주차 대책, 관람객 동선·안전관리 방안, 기반 시설 구축 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의 섬 정책과 해양관광의 미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행사다”며 “행사 준비에 있어 안전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구 부시장은 “전남도,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사장 조성과 기반 시설 구축, 교통·숙박·편의시설 확충까지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섬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일요일 외식은 해남서”…이용액 30% 환급

군, 음식점 이용객 대상 지원…매월 350명 최대 10만원

해남군은 일요일에 해남에서 음식점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30%,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 먹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매주 일요일 해남군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달 추첨을 통해 350명을 선정해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하게 된다.

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일요일 음식점에서 식사 후 영수증을 사진촬영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이용금액의 30%, 1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되돌려주게 된다.

환급은 해남미소포인트 또는 해남사랑 상품권(카드 충전)으로 하게 된다.

응모방법은 해남군 문화관광 누리집에 접속해 관련 홍보게시물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전용 번호(010-3320-4099)로 ‘신청’ 문자 발송 후 링크 수신하면 된다.

해남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 음식점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계산대나 식탁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업주분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홍보가 더해진다면 일요일 외식문화가 정착돼 침체된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월 기준 다음달에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대표 누리집 또는 문화관광 누리집를 참고하거나 해남군 관광실(061-530-5979)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